

사회

‘광주 현대사’ 그랜드호텔 열린다

DJ·국회의원 등 정치인들 ‘만남의 장소’ 1번지

철거 준비 공사... 내년 2월 복합쇼핑센터 오름

한때 광주 호텔의 대명사로 불렸던 그랜드관광호텔이 25년 간의 역사를 뒤로한 채 사라진다.

11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불로동 121번지의 그랜드호텔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 공사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했다.

1주일 동안의 준비 공사가 마무리되면 중장비를 이용, 본격적인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된다. 호텔 건물 철거 공사는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6년 문을 연 그랜드호텔은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에 60여개의 객실과 부대시설로 운영돼 왔다.

특히 이 호텔은 한때 광주 구도심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직원 수만 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또 야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지역을 방문할 경우 숙소로 애용돼 광주·전남의 ‘정치’가 이뤄진 현장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각종 주요 기관의 행사 개최 장소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이 호텔은 지난 2005년 전남도청사가 무안으로 이전된 이후, 인근 상권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폐업신고를 거쳐 지난 2009년 8월 최종 부도처리됐다.

한편, 그랜드호텔이 철거된 자리에는 연면적 약 5000㎡에 지상 3~4층 규모의 복합 쇼핑센터가 내년 2월에 들어설 예정이다. 호텔 철거와 복합 쇼핑센터 신축은 (주)미투종합건설이 맡았다.



지난 1986년 문을 연 광주시 동구 불로동 그랜드관광호텔 건물 철거 공사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했다. 11일 본격적인 철거를 앞두고 방직마과 추락방지 그물이 설치된 그랜드호텔.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이 완료되면 복합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업체 측은 내다보고 있다. 건물 신축을 추진중인 미투종합건설 관계자는 “복합 쇼핑센터가

들어서 광주 구도심의 경제가 활기를 띄우기를 기대한다”며 “상권 회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가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모든 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내년 전국 2300곳도

내년에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2300여개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가 배치돼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중·고교에서 활동할 진로진학 상담교사 1407명을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지난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새로 도입된 교과교사다. 앞서 교과부는 올해 처음으로 진로진학 상담교사 1392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총 2799명의 상담교사가 중·고교에서 활동하게 된다. 모든 고교에는 1명 이상 배치되며

400여개 중학교에도 배치가 시작된다.

이번에 선발된 교사들은 내년 1월부터 600여시간의 연수를 거쳐 진로진학 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내년 3월부터 활동한다. 국공립 990명, 사립 417명이다.

교과부는 당초 150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시도 교육청 가운데 예산 부족이나 정책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전북(0명)과 경북(국공립 44명만 선발) 교육청이 선발 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014년까지 5300여개의 모든 중·고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진로진학 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특성화 고대입 특별전형 1.5%만 허용

2015년까지... 전문대도 ‘대학교’ 명칭 쓸 수 있다

201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대학에서 특성화 고 학생을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1.5%까지만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정원의 특별전형 개편, 전문대의 4년제 간호과 설치기준 마련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에서 특성화 고 학생을 정원의 동등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현행 5%에서 2013~2014학년도에 3%로, 2015년도에 1.5%로 줄어든다. 당초 교과부는 특성화 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자 2015학년도에 정원의 특별전형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학생·학부모의 반대로 비율을 조정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의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대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전문대학교와 기술대학의 명칭을 ‘대학’으로 한정했지만 내년부터 정관만 변경하면 ‘대학’ 또는 ‘대학교’ 가운데 선호하는 명칭을 교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대에 수업연한이 4년제인 간호과와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각각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심사해 11월 중으로 해당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대학·학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영뉴스

오늘 날씨

크 일교차 ‘감기조심’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Gwangju, Jeonnam, and Jeonbuk. Columns include region, temperature, and weather conditions.

Table with tide and wind forecasts for the sea. Columns include location, tide type, wind speed, and wave height.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7 days. Columns include date, weather icon, and temperature range.

대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안철수·잡스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외국인인 애플 공동창업자 고(故) 스티브 잡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대학신문과 인터넷포털 캠퍼스라이프는 지난달 1~21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2187명을 대상으로 ‘2011년 대학생의 식조사 및 기업이미지·상품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5.2%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은 안철수라고 답했다고 11일 공개했다. 다음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16.3%)과 고(故) 노무현 대통령(4.4%) 순이었다. 가장 존경하는 외국인으로는 응답자의 20.0%가 스티브 잡스라고 답했고 워런 버핏(11.1%)과 빌 게이츠(10.5%)가 뒤를 이었다. /연영뉴스

Advertisement for KJH hearing aids. Features a cartoon of a knight on a horse and text: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Advertisement for Dr. Lee's clinic. Text: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Includes a photo of Dr. Lee and contact information: 'www.dr-lee.co.kr'.

Advertisement for OKNWOOD furniture. Text: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Includes photos of furniture and a list of services: '친환경 제품', '각종 내장재', '판매품목'.